

피아노과

| 김지민(11학번)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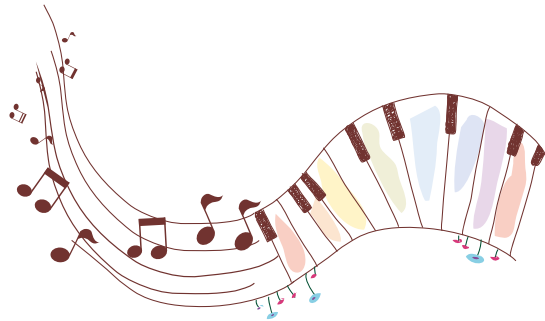
피아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악기입니다.

클래식, 뉴에이지, 가요 등 대부분의 음악에서 우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주기도 하죠.

이처럼 피아노는 우리에게 어떤 악기보다 친근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듣는 이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연세대학교 피아노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 피아노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피아노과의 수업은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실기수업과 전공과목을 배우는 이론수업,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죠. 실기수업은 지도교수님의 1:1레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아주 세밀한 터치, 호흡, 음색부터 음량의 진폭, 화려한 테크닉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어느 한 시대의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곡가의 곡들을 배우며, 많은 무대 연주 기회를 통해 연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수업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과목으로는 '화성학', '시창·청음', '건반화성' 등이 있습니다. 이 수업들은 실기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음악의 구조와 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음감과 박자감각을 키워주는 수업이에요.

이러한 이론수업들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거나 혼자 연습을 할 때, 스스로 음악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곡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또한 다른 음악 대학 학생들도 그렇듯 피아노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클리 무대란 전공실기 중 하나로, 훌륭한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등이 매주 열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수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아노과 학생들은 서로의 음악을 통해 음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보고 들으며 많은 부분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 Q&A

입시 실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곡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적인 장점과 음악성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곡을 선정할 때도 무조건 남들이 많이 하는 곡을 따라서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음악적인 색깔과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죠.



■ 피아노과에 들어가면 피아노만 하고 다른 악기들과의 교류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들과 같이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음악대학 과목 중 '실내악'이라는 수업에서는 한 학기동안 서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 다른 독주악기들의 반주도 할 수 있고, 작곡과 학생들의 창작곡들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이로 인해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피아노에 대해 열정을 갖고 즐길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주무대와 실기시험, 전공과목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선 많은 연습과 공부가 필요한데, 그 모든 걸 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성실함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진정으로 피아노를 사랑하고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피아노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전공실기
- 화성학
- 시창청음
- 건반화성
- 형식과 분석
- 음악사
- 피아노 문헌 등

■ 졸업 후 진로

- 연주(클래식, 뉴에이지, OST)
- 지도교수
- 음악감독
- 기획자
- 반주전문가 등

Plus+

피아노과에 들어오면 다양한 곡들을 배웁니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공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의 곡들만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음악적인 시각이 좁아지게 되겠죠.

미리미리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연습하고 그에 더해 그 시대의 작곡가나 작품에 대한 배경도 살펴본다면 한층 더 넓어진 음악적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